

# 아동의 애착,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간의 관계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 Regulation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임강사 최진아  
전임강사 박은민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Jin-Ah Choi*

*Full-time Lecturer : Eun-Min Park*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attachment,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 regulation.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233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age(5th-6th grades) in G-city, Korea, using the IPPA-R, the Social Competence Inventory and an Emotion Regulation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then analyzed using a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social competence was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attachment and social competence have a positively correlated relationship. Peer attachments strongly affect the attributes of social competence when using a canonical variate analysis. Secondly,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was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are also positively correlated. Maternal attachment particularly strongly affected the attributes of emotion regulation. Thirdl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regulation was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regulation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주제어(Key Words) : 애착(attachment),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 I. 서론

애착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연결시키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결속'으로서, 양육자와의 최초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어떤 사람에게 강한 애착을 느끼고 관계를 유지하는 욕구는 1차적인 인간의 본능으로써 절대적인 동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Bowlby, 1973). 유아는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동기를 바탕으로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때 양육자와 주고 받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경험은 유아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준다. 즉 양육자가 유아의 신호에 주목하고, 신호를 정확하게 해석하며, 즉각적으로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유아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진다면, 유아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다. 그러나 민감하지 못하고 유용하지 못한 양육자의 행동은 불안정 애착형성의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양육자와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경험은 점차 정신적 표상과 정보처리 규칙으로서 유아에게 저장된다(Main, Kaplan, & Cassidy, 1985). 즉 외적 세계의 경험이 정신적 표상이라는 내적세계로 옮겨오게 되고, 표상으로서의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즉 내적 작동모델은 개인의 애착역사, 기억, 감정, 신념의 복잡한 연결망 속에 집약한 것이다(Wallin, 2010). 이에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 뿐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에서도 나타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애착행동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준다. 이는 유아기뿐 만 아니라 아동기 더 나아가 성인기의 자신과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Shroufe & Freeson, 1986). 따라서 애착은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써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었고(Bowlby, 1979), 그와 같은 견지에서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가 보고되어 왔다.

한편 아동기는 사회적 유능감 발달의 민감기로서(Katz & McClellan, 1997),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요한 시기이다. 사회적 유능감은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의 관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Ford, 1982). 아동에게 있어서는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시키는 능력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으로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를 토대로 고려하였다(박금옥, 1998).

또한 아동기에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또래환경 및 학교환경에 잘 적응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행복감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사회적 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이후의 정서적 적응 및 학교생활 등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애착유형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성을 보여주었는데,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애착대상 중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사회적 유능감과 유의하고 직접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노명희, 1995; 라양균, 2006; 이은순, 황미영, 김영희, 2009). Bost, Vaughn, Washington, Cielinski와 Bradbard(1998)는 안정된 애착의 유지원 아동이 더 넓고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갖고 있으며, 또래유능성도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아동은 다른 사회적 관계 맺기에 대한 동기도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Srofe, Egeland, & Carlson, 1999).

한편 아동기에서의 애착이 발달과정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아동기에서도 부모와의 애착이 여전히 명백하게 중요하다라는 여러 경험적 연구결과들에 의해 최근 아동기 애착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되고 있다(Kerns, 2008). 이에 Schneider, Atkinson과 Tardif(2001)는 부모-아동 애착의 안정성과 아동의 또래관계간의 상관을 보고하였다. 특히 이상관은 다른 또래와의 관계에서보다 친밀한 우정의 관계에서 더 강력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Kerns, Klepac과 Cole(1996)은 5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아동은 또래로부터 잘 수용되어지고, 또래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Bohlin, Hagekull과 Rydell(2000)은 15개월부터 8-9세까지의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유아기에 안정된 애착을 보이는 유아는 아동기가 되어서 더 사회적으로 활동적이고, 긍정적이며, 인기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안정된 애착의 아동들은 또래관계에 더 참여적이었다(Yunger, Corby, & Perry, 2005). 이하경, 이경숙과 박진아(2007)의 5-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사교성, 인지도 및 지도력 등의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윤연기(2010)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부,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부, 모 애착이 또래유능성과 관련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부 애착은 아동의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에 영향을 주었고, 모 애착에서의 모 의사소통 하위요인이 또래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애착유형을 분류하여

연구한 오성경(2011)의 연구에서도 애착유형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안정형이 양가형, 회피형보다 사회적 유능감이 유의하게 높았고, 양가형, 회피형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희영와 배효심(2007)은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수준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와 교사에서 애착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유능감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애착과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유아 및 아동에게 어머니가 중요한 애착의 대상이고, 그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아동기에는 전형적으로 어머니가 애착의 상위위계에서 놓여 있고(Main & Weston, 1981),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에도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남게 된다고 보았다(Fralely & Davis, 1997).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에서 애착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서 부모 뿐 아니라 또래를 보고하고 있다(Markiewicz, Lawford, Doyle, & Haggart, 2006). Doyle, Lawford와 Markiewicz(2009)도 청소년 시기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안정된 관계를 갖는 바 친밀한 친구에게 있어서도 어머니와 유사한 양상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부모와 또래의 애착을 분리하여 제시하고, 부, 모, 또래의 애착의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애착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에 또래 애착과 관련된 연구가 실시되면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전재일, 천수혜, 2008; 박은민, 2010), 공격성(유혜경, 남현우, 2010), 우울(윤명숙, 조혜정, 이현희, 2009) 등과의 관련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애착관계가 어머니의 원형을 토대로 이 이후의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Ainsworth, 1989), 초등학교 후기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애착대상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이에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을 연구함에 있어서 부, 모, 또래의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살피고, 아동 후기에 있어서 그 상대적인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애착을 부, 모, 또래애착으로 측정하였고, 이들이 사회적 유능감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부, 모, 또래애착 중 어느 요인이 사회적 유능감을 설명하는데 가장 유의한지, 또한 5가지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 중 어느 요인이 애착을 설명하는데 가장 유의한지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초등학교 후기의 애착 및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증진을 위한 개입전략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한편 Cassidy(1994)는 정서조절과 애착의 질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안정된 애착의 유아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모두를 수용하고 통합하는 융통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불안정애착의 유아는 제한적이고,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정서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Fonagy, Gereley, Jurist와 Target(2002), Schore(2003)도 애착관계를 우리가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차적인 맥락이라고 제안한다. 안정애착의 경우 여러 과정을 통해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유아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안정애착 부모의 양육적이고 일관된 반응은 유아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즉 반응적이고, 유용한 양육자는 유아의 정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시행함으로써 유아를 진정시키게 된다. 이러한 부모는 유아의 정서적 자기인식을 개발시키고, 정서적 자기통제에서의 융통성 있는 기술과 능력 성장의 기초를 제공한다(Thompson & Meyer, 2007). 또한 안정애착의 아동은 부모와 매일의 경험에 대해 풍부하게 대화하고, 느낌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정서적 이해가 촉진되고,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Wareham & Salmon, 2006). 그 결과 유아는 애착관계를 정서가 효과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맥락으로 경험한다. 따라서 안정애착관계는 우리가 초기 아동기에서 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것을 배우는 학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Wallin, 2010;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한편 정서적 조절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측정되어 온 개념이다. 이에 정서조절을 자신의 정서의 톤과 정서적 역동을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정서 조절의 개념, 정서적 경험을 유지하고 조절하기 위한 정서조절 전략 즉 정서관리를 위한 처리 전략으로서 볼 수 있다(Morris et al., 2007, 재인용). 이와 같이 정서 조절이 여러 방식으로 정의되고 측정되는 바 선행연구에서도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서의 정서조절과 정서조절 전략으로서의 정서조절이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서의 정서조절의 개념을 사용하였고, 정서조절의 개념에 자기정서조절과 타인정서조절의 하위요인을 포함하였다.

영, 유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애착유형과 정서조절간의 관련성이 보고되었고, 안정애착의 유아가 효과적인 정서조절 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혜주, 이순행, 최해훈, 방희정, 2005; 양연숙, 2000; 유효순, 2003). Morris 외(2007)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조절의 발달에 미치는 가족적 맥락에 대한 문헌 연구에서 정서조절능력 및 정서조절 전략은 둘 다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Contreras, Kerns, Weimer, Gentzler와 Tomich(2000)는 아동대상의 연구에서 안정된 애착의 아동이 적응적인 정

서조절전략인 구조적 처리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Kerns, Abraham, Schlegelmilch와 Morgan(2007)의 4-5학년 대상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아동이 교실상황에서 더 적응적인 정서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Livia와 Marco(2011)는 저학년 아동의 애착유형과 정서적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애착유형에 따라 정서적 조절 전략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안정된 아동은 더 높은 빈도의 인지관련전략을 사용하였고, 혼란유형의 아동들은 그 비율이 낮았다. 반면 불안정애착아동들은 행동개입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지연과 백정빈(2009)의 초등학교 대상의 연구에서는 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보고함으로써 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높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오성경(2011)은 아동에서 애착유형에 따라 정서조절 능력에서의 차이를 보고하였는데, 안정애착유형이 회피, 양가애착유형보다 자기정서조절 및 타인정서조절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주로 애착유형에 따라 정서조절 전략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애착의 안정성과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연구가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 아버지 및 또래애착과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애착과 정서조절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구체적으로 아동의 정서적 조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애착대상과의 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애착,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더 확장시켜 살펴보기 위하여 정서조절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경우 사회적 유능감도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Hubbard, Coie, & Dodge, 1993). 전정미(2006)는 아동의 정서조절이 높을수록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도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나미(2005)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조절을 잘 할 수록 친구관계의 즐거움과 친밀감을 포함한 친구관계의 질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애착,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 간의 관계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각 변인군간의 관계에서 개별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변인군간의 구체적 관계를 설명하고, 두 변인군간의 상호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초등학교 후기에 있어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의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전략의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애착,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1)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있어서 애착 하위요인의 상대

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2) 아동의 애착에 있어서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2)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의 관계는 어떠한가?

(1) 아동의 애착에 있어서 정서조절 하위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2) 아동의 정서조절에 있어서 애착 하위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3) 아동의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1) 아동의 정서조절에 있어서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2)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있어서 정서조절 하위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2011년 9월1일부터 3일까지 G광역시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23명\*

변수	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학생	115	51.6
	여학생	108	48.4
학년	5학년	123	55.2
	6학년	100	44.8
부학력	중학교 졸업	1	0.5
	고등학교 졸업	43	20.7
	대학교 졸업	130	62.5
	대학원 졸업 이상	34	16.3
모학력	중학교 졸업	0	0
	고등학교 졸업	53	25.6
	대학교 졸업	127	61.4
대학원 졸업 이상	대학원 졸업 이상	27	13.0
	근로자	15	6.9
	숙련공	17	7.8
부직업	판매직	38	17.4
	사무직	114	52.3
	전문직	25	11.5
	기타(무직, 주부)	9	4.1
	근로자	2	0.9
모직업	숙련공	1	0.5
	판매직	34	15.6
	사무직	82	37.6
	전문직	18	8.3
	기타(무직, 주부)	81	37.2

주. \*결측치로 인해 사례합계가 동일하지 않음

다. 연구자는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설문 응답방법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담임교사에 의해 배부되었는데 이때 아동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실시되었으며, 실시 후 담임교사에 의해 수집되었다. 설문지 전체에 응답하는데 30-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부, 모가 부재한 아동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자료를 제외한 22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115명(51.6%), 여학생 108명(48.4%)이었고, 5학년 123명(55.2%), 6학년 100명(44.8%)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78.8%, 고등학교 졸업 20.7%, 고등학교 졸업미만이 0.5%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74.4%, 고등학교 졸업 25.6%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가장 많은 52.3%를 나타내었고, 판매직 17.4%, 전문직 11.5%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사무직이 3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주부, 무직) 37.2%, 판매직 15.6%의 순이었다<표 1>.

2. 측정도구

1) 애착 척도

애착 척도로는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IPPA-R은 애착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아동이 직접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는 자기보고형 도구이다. 이는 9-15세 아동의 부모, 또래 애착의 평가에 유용하다(Gullone & Robinson, 2005). IPPA-R은 부, 모, 또래 애착 각각 2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별 문항수는 부, 모 애착의 신뢰요인이 10문항, 의사소통요인이 9문항, 소외요인이 6문항이고, 또래애착에서는 신뢰요인이 10문항, 의사소통요인이 8문항, 소외요인이 7문항이다. 이와 같이 신뢰, 의사소통, 소외의 3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뢰는 상호간 이해와 존중의 정도를 나타내고,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질과 범위를, 소외는 대인간 소외와 분노의 감정을 평가한다.

결과 처리 시 각 요인에서의 부적 문항은 역산하였고, 소외요인은 기본적으로 다른 요인과 반대의 개념이므로 역산하여 처리하였다. 이에 부, 모, 또래 애착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부애착은 .95, 모애착은 .92, 또래애착은 .91이었다.

2) 사회적 유능감 척도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박금옥(1998)이 개발한 사회적 능력 척도를 초등학교에 맞게 재구성한 한미현(2005)

의 사회적 능력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교성, 대인 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하위 요인별 10문항, 총 50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서 아동이 직접 응답하게 한 도구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별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교성은 사회적으로 더 유능한 행동으로 친구를 쉽게 사귀는 것, 대인적응성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협동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 사회참여도는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놀이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 주도성은 자신 있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앞장서서 놀이를 주도하고 친구들에게 지시를 잘하며 그러한 행동을 친구들이 잘 따라주는 것, 인기도는 재미있는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과 같은 집단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수단이 되는 능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사교성은 .88, 대인적응성은 .85, 사회참여도는 .92, 주도성은 .90, 인기는 .91이었다.

3) 정서조절 척도

정서조절 척도로는 Mayer와 Salovey(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개발한 문용린(1996)의 초등학교 고학년용 '정서지능검사'의 하위영역의 하나인 정서조절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서조절은 자기정서조절 8문항, 타인정서조절 7문항, 총 15문항의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정서조절은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고 싶고 하면서 좋지 않은 기분을 감소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정서조절은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려는 능력, 자신에 대해 타인이 갖는 인상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동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자기정서조절은 .80, 타인정서조절은 .76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for window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 Ch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애착,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 변인군간의 관계의 유무와 정도 등의 총체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SPSS/for windows 12.0의 PROC CANCORR를 이용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준상관계수를 통해 의미 있는 정준함수의 수를 결정하고, 그 함수의 관계구조를 정준부하량, 정준교차부하량을 통해 해석하였다.

〈표 2〉 애착군과 사회적 유능감군의 정준상관분석

정준함수	Canonical R	정준근	Wilk's $\lambda$	Chi-SQ	df	유의수준
제1정준함수	.694	.482	.466	95.191	15	.000
제2정준함수	.270	.073	.898	13.381	8	.099
제3정준함수	.177	.032	.969	3.955	3	.266

〈표 3〉 애착군과 사회적 유능감군의 정준부하량과 정준교차부하량

	제1정준함수	
	정준부하량	정준교차부하량
예측변인군		
부애착	-.440	-.306
모애착	-.682	-.473
포래애착	-.982	-.681
평가변인군		
사교성	-.740	-.514
대인적응성	-.865	-.600
사회참여도	-.732	-.508
주도성	-.806	-.560
인기성	-.920	-.638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간의 관계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두 변수군 간의 관계에 기여하는 각 개별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준상관분석은 두 개 이상의 종속변수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 사이의 상호관계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으로써 복수의 상호 독립적인 정준함수들을 도출시켜 준다(차석빈, 김홍범, 오홍철, 윤지환, 김우근, 2008).

이에 부애착, 모애착, 포래애착을 예측변인군으로 하였고,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성은 평가변인군으로 하였다.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정준함수가 도출되었다. 정준함수의 정준상관계수, 정준근의 설명량 및 유의수준을 볼 때, 통상적으로 정준함수의 유의도가 .05보다 작은 경우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김영석, 2006), 제1정준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Wilk's  $\lambda = .466, p < .001$ )하였다(표 2).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1정준함수에서 두 변인군으로부터 도출된 선형조합간의 단순상관을 보여주는 정준상관계수는 .694( $p < .001$ )로 나타났고, 정준근의 값은 .482로 나타나서, 제1정준함수가 변량의 48.2%를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이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1정준함수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각각의 정준부하량(canonical loading), 정준교차부하량(canonical cross loading)을 산출, 제시하였다(표 3). 정준부하량은 예

측변인군 또는 평가변인군의 한 변수와 그 변수가 속해 있는 정준변량 사이의 단순선형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에 한 변인이 자신이 속한 정준변인에 대해 가지는 상대적인 공헌도인 것이다. 대체적으로 정준부하량의 값이 절대값 0.3 혹은 0.4 이상이면 정준변량을 설명하는 중요변수로 간주되어 정준함수의 해석에 포함된다(차석빈 외, 2008).

먼저 정준부하량을 보면, 예측변인군에서는 포래애착(-.982), 모애착(-.682), 부애착(-.440)로 나타나서 모두 .30 이상이었다. 평가변인군에서는 인기성(-.920), 대인적응성(-.865), 주도성(-.806), 사교성(-.740), 사회참여도(-.732)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군에서 포래애착, 모애착, 부애착 등이 정준변인의 속성에 모두 높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기성, 대인적응성, 주도성, 사교성, 사회참여도도 모두 사회적 유능감 정준변인의 속성에 높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더 나아가 변인들간의 직접적인 공분산을 고려한 정준교차부하량을 살펴보았다. 정준교차부하량의 값은 정준부하량에 정준상관계수를 곱해서 구하며, 각 요소변인이 상대 정준변인과 가진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각 요소변인들과 다른 정준변인간의 구조행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김진숙, 2006). 일반적으로 정준교차부하량이 .30이하인 경우,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에 정준교차부하량에 의하면 예측변인군에서 포래애착(-.681), 모애착(-.473), 부애착(-.306)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유능감을 설명함에 있어서 포래애착이 가장 높게 기여했고, 다음으로 모애착이며, 부애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여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평가변인군에서는 인기성(-.638), 대인적응성(-.600), 주도성(-.560), 사교성(-.514), 사회참여도(-.508)의 순서로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기성과 대인적응성이 가장 높게 기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2. 애착과 정서조절간의 관계

애착과 정서조절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두 변수군 간의 관계에 기여하는 각 개별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애착, 모애착, 포래애착을 예측변인군으로, 자기정서조절, 타인정서조절을 평가변인군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표 4〉 애착군과 정서조절군의 정준상관분석

정준함수	Canonical R	정준근	Wilk's λ	Chi-SQ	df	유의수준
제1정준함수	.602	.362	.611	68.491	6	.000
제2정준함수	.206	.042	.958	6.003	2	.050

〈표 5〉 애착군과 정서조절변인군의 정준부하량과 정준교차부하량

	제1정준함수	
	정준부하량	정준교차부하량
예측변인군		
부애착	-.720	-.433
모애착	-.902	-.543
또래애착	-.830	-.500
평가변인군		
자기정서조절	-.960	-.578
타인정서조절	-.837	-.504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도출된 2개의 함수 중 제1정준함수가 유의미한 것(Wilk's λ = .611, p < .001)으로 볼 수 있다.

제1정준함수의 경우 정준상관계수는 .602(p < .001)로 나타났고, 정준근의 값은 .362로 나타나서 제1정준함수가 변량의 36.2%를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표 4). 이는 애착과 정서조절이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각각의 정준부하량(canonical loading), 정준교차부하량(canonical cross loading)을 산출하였다(표 5).

〈표 5〉에서 정준부하량을 살펴보면, 예측변인군에서는 모애착(-.902), 또래애착(-.830), 부애착(-.720)으로 나타나서 모든 변인들의 기여도가 .30이상으로 나타났다. 평가변인군에서는 자기정서조절(-.960), 타인정서조절(-.837)로 나타나서 모든 변인들의 기여도가 역시 .3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의 변인 중에서 또래애착, 모애착, 부애착 등이 정준변인의 속성에 높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정서조절과 타인정서조절 모두 정준변인의 속성에 높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정준교차부하량에 의하면, 예측변인군은 모애착(-.543), 또래애착(-.500), 부애착(-.433)으로 나타나서, 정서조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모애착이 가장 높게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가변인군에서는 자기정서조절(-.578), 타인정서조절(-.504)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기정서조절이 타인정서조절보다 더 높게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3. 정서조절과 사회적 유능감간의 관계

정서조절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두 변수군 간의 관계에 기여하는 각 개별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자기정서조절, 타인정서조절을 예측변인군으로 하였고,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인기성을 평가변인군으로 하였다.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2개의 함수 중 제1정준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Wilk's λ = .609, p < .001)하였다(표 6).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준상관계수는 .617(p < .001)로 나타났고, 정준근의 값은 .381로 나타났다. 제1정준함수가 변량의 38.1%를 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정서조절과 사회적 유능감이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각각의 정준부하량(canonical loading), 정준교차부하량(canonical cross loading)을 산출, 제시하였다(표 7).

먼저 정준부하량을 보면, 예측변인군에서는 자기정서조절(-.914), 타인정서조절(-.856)로 나타났고, 평가변인군에서는 대인적응성(-.914), 사교성(-.851), 주도성(-.814), 인기성(-.714), 사회참여도(-.683)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조절의 변인 중에서 자기정서조절이 정준변인의 속성에 매우 높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인적응성, 사교성, 주도성의 순으로 높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준교차부하량을 보면 예측변인군은 자기정서조절(-.564), 타인정서조절(-.528)로 나타났고, 평가변인군에서는 대인적응성(-.564), 사교성(-.525), 주도성(-.502), 인기성(-.441), 사회참여도(-.421)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유능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기정서조절이 가장 높게 기여한다는 것이고, 정서조절을 설명함에 있어서 대인적응성과 사교성이 높게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애착,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는 3개의 정준함수 중 제1정준함수가 유의미하게 선택되어, 이를 기준으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정준근의 값은 .482로 나타나서 변량의 48.2%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이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

〈표 6〉 정서조절군과 사회적 유능감군의 정준상관분석

정준함수	Canonical R	정준근	Wilk's λ	Chi-SQ	df	유의수준
제1정준함수	.617	.381	.609	88.670	10	.000
제2정준함수	.128	.016	.984	2.953	48	.566

〈표 7〉 정서조절군과 사회적 유능감군의 정준부하량과 정준교차부하량

	제1정준함수	
	정준부하량	정준교차부하량
<b>예측변인군</b>		
자기정서조절	-.914	-.564
타인정서조절	-.856	-.528
<b>평가변인군</b>		
사교성	-.851	-.525
대인적응성	-.914	-.564
사회참여도	-.683	-.421
주도성	-.814	-.502
인기성	-.714	-.441

에 영향을 준다는 Bowlby(1979), Sroufe와 Freeson(1986)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애착이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된다는 여러 선행연구(오성경, 2011; 윤연기, 2010; 이하경 외, 2007; Kerns, Tomich, Aspelmeier, & Contreras, 2000; Schneider et al., 200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정준교차부하량을 통하여 애착 정준 변인군과 사회적 유능감 정준변인군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알아보았는데, 특히 사회적 유능감 변인군에 대해 부, 모, 또래애착에서, 또래 애착의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애착에 대해서는 인기성과 대인적응성이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후기의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를 넘어서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특히 사회적 유능감을 갖는데 있어서 또래와 상호이해하고 존중하는 등의 신뢰감을 형성하고, 친밀하고 반응적인 의사소통을 나누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이 저연령화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또래와의 신뢰감과 의사소통의 부재, 관계의 단절과 소외가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적 유능감을 상실하게 하여 사회적 부적응을 가져오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통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래 애착의 형성을 돕는 다양한 개입이 요구된다. 즉 또래간 상호존중과 이해의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의사소통 기술의 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의 확산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아동의 사회적 유

능성의 향상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둘째, 애착과 정서조절의 관계구조에서는 제1정준함수가 유의미하였다. 정준근의 값은 .362로 나타나서 정준함수가 36.2%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이는 애착과 정서조절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정준교차부하량에 의하여 애착 정준변인들과 정서조절 정준변인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는데, 정서조절 정준변인군에 대해 부, 모, 또래 애착 중에서 모애착이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또래애착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애착이 아동의 정서조절에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며(오성경, 2011; 이지연, 백정빈, 2008; Cassidy, 1994; Fonagy et al., 2002; Kerns et al., 2007; Morris et al., 2007), 안정애착관계가 생애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정서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학습의 장이라고 보고한 Wallin(2010), Morris 외(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모의 애착이 또래나 부에 비해 정서조절에 더 큰 기여를 함으로써 정서조절에 대한 초등학교 후기의 모애착의 중요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하겠다. 모의 애착은 특히 아동의 자기정서조절 능력과 관련된다. 즉 모와의 애착 안정성이 높은 아동이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고 하며, 부정적인 기분을 감소시키는 등 자기정서를 더 잘 조절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모와의 신뢰롭고, 반응적인 의사소통 및 친밀감을 통하여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후기에도 모와의 애착은 아동의 정서조절과 중요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 모와의 애착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는 주로 영,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후기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이 시기의 아동에 대한 모-아 애착 증진을 위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등의 개발,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통하여 정서조절능력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구조를 살펴본 결과 제1정준함수가 유의하였고, 정준근의 값은 .381로 나타나서 변량의 38.1%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정서조절과 사회적 유능감 역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정준교차부하량을 통하여 정서조절 정준 변인군과 사회적 유능



감 정준변인군의 관련성을 알아 본 결과 사회적 유능감 변인군에 대해 자기정서조절의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정서조절군에 대한 대인적응성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사회적 유능감의 증진을 위해서는 자기정서조절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고, 더 나아가 정서조절을 위해서는 대인적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이 높을수록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 참여도, 주도성, 인기도가 높다는 전정미(2006)의 연구 및 정서조절이 친구관계의 질과 관련된다는 김나미(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아동의 애착이 사회적 유능감 및 정서조절과 관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 줌으로써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임을 지지해 주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예측변인에 대한 평가변인의 하위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밝힘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 세 변인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세 변인이 어떤 경로를 거쳐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 인과 경로를 밝힘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적, 상담적 개입전략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후기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이 시기의 애착,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는 바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서 인간발달 경로에서 발달단계별 관련성과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환경 중에서 부모, 또래 환경에만 국한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는 바 앞으로는 좀 더 포괄적인 환경적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의 촉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김나미(2005). 아동의 정서능력과 친구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석(2006). **사회조사방법론: SPSS Win 통계분석**. 서울: 나남출판.  
 김진숙(2006). 창의적 성향, 창의적 능력, 변화 신념의 관계 구조.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명희(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라양균(2006). 영아의 사회, 정서능력과 기질 및 애착간의 관계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용린(1996). **한국 학생들의 정서 지능 측정 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박금옥(1998). 청소년들의 자기조정학습방략 정도와 학업성취 및 사회적 능력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은민(2010). 청소년의 교사애착, 또래애착, 모애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3), 75-88.  
 박혜주, 이순행, 최해훈, 방희정(2005). 낯선 상황에서 영아들의 애착과 정서조절간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23-38.  
 양연숙(2000). 영아의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성경(2011). 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능력 및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옥 정(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혜경, 남현우(2010). 초등학교 고학년의 부, 모 애착, 또래 애착, 성역할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7(6), 215-238.  
 유효순(2003).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0(2), 19-31.  
 윤명숙, 조혜정, 이현희(2009).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및 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5(2), 131-156.  
 윤연기(2010). 초등학교생의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력과 또래유능성의 매개효과 검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순, 황미영, 김영희(2009). 유아의 애착유형과 정서조절 및 사회적 유능성. **생활과학연구논총**, 13(1), 59-82.  
 이지연, 백정빈(2009).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논단**, 8(1), 57-78.  
 이하경, 이경숙, 박진아(2007). 학령후기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1(2), 141-155.  
 이희영, 배효심(2007).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5(2), 127-143.  
 전재일, 천수혜(2008).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4(2),

- 163-187.
- 진정미(2006).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석빈, 김홍범, 오홍철, 윤지환, 김우곤(2008). **사레를 통해 본 다변량분석의 이해**. 서울: 백산출판사.
- 한미현(2005). 어머니의 대상관계수준과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ohlin, G., Hagekull, B., & Rydell, A.(2000). Attachment and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from infancy to middle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9(1), 24-39.
- Bost, K., Vaughn, B., Washington, W., Cielinski, K. L., & Bradbard, M.(1998). Social competence, social support, and attachment: demarcation of construct domains, measurement, and paths of influence for preschool children attending head start. *Child Development*, 69(1), 192-218.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 Y.: Basic Books.
- Bowlby, J.(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Cassidy, J.(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aspect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28-249.
- Contreras, J. M., Kerns, K. A., Weimer, B. L., Gentzler, A. L., & Tomich, P. L.(2000). Emotion regulation as a mediator of associations between mother-child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1), 111-124.
- Doyle, A. B., Lawford, H., & Markiewicz, D.(2009). Attachment style with mother, father, best friend, and romantic partner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9(4), 690-714.
- Fonagy, P., Gereley, G., Jurist, E. J., & Target, M. I.(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 Y.: Other Press.
- Ford, M. E.(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23-340.
- Fraley, R. C., & Davis, K. E.(1997). Attachment formation and transfer in young adults' close friendships and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4(2), 131-144.
- Gullone, E., & Robinson, K.(2005).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 for children: a psychometric investigation.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2(1), 67-79.
- Hubbard, J. A., Coie, J. D., & Dodge, K. A.(1993). *The social behavior of popular and average status boys in a group of unfamiliar peers*. Unpublished manuscript. Durham, NC: Duke University.
- Katz, L. G., & McClellan, D. E.(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Washington DC: NAEYC.
- Kerns, K. A.(2008). Attachment in middle childhood.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 Y.: The Guilford Press.
- Kerns, K. A., Abraham, M. M., Schlegelmilch, A., & Morgan, T. A.(2007). Mother-child attachment in later middle childhood: assessment approaches and associations with mood and emotion regulation.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9(1), 33-53.
- Kerns, K. A., Klepac, L., & Cole, A.(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3), 457-466.
- Kerns, K. A., Tomich, P. L., Aspelmeier, J. E., & Contreras, J. M.(2000). Attachment based assessmen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36(5), 614-626.
- Livia, C., & Marco, D.(2011). Patterns of attachment and emotional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20(1), 51-72.

-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66-104.
- Main, M., & Weston, D.(1981). The quality of the toddler's relationship to mother and father: related to conflict behavior and the readines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3), 932-940.
- Markiewicz, D., Lawford, H., Doyle, A. B., & Haggart, N.(2006).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use of mothers, fathers, best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to fulfill attachment nee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1), 127-140.
- Mayer, J. D., & Salovey,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 Schneider, B. H., Atkinson, L., & Tardif, C.(2001). Child-parent attachment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a quantitative re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86-100.
- Schore, A. N.(2003). *Affect regulation and the repair of the self*. N. Y.: Norton.
- Sroufe, L. A., Egeland, B., & Carlson, E. A.(1999). One social world; the integrated development of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ships. In W. A. Collins., & B. Laursen(Eds.), *Relationships as developmental contexts*. N. J.: Erlbaum.
- Sroufe, L. A., & Frieson, J.(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N. J.: Erlbaum.
- Thompson, R. A., & Meyer, S.(2007).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family. In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N. Y.: The Guilford Press.
- Wallin, D.(2010). *Attachment in psychotherapy*. N. Y.: The Guilford Press. 애착과 심리치료.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공역). 서울: 학지사. (2007년 원저발간).
- Wareham, P., & Salmon, K.(2006). Mother-child reminiscing about everyday experiences: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 the preschool yea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5), 535-554.
- Yunger, J. L., Corby, B. C., & Perry, D. G.(2005). Dimensions of attachment in middle childhood. In K. A. Kerns., & R. A. Richardson(Eds.), *Attachment in middle childhood*, N. Y.: The Guilford Press.

---

접 수 일 : 2011년 10월 10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0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1월 23일